

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허 성 호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패러다임과 그 양상을 알아보고자 했다. 자료수집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 및 경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평균 연령 23세(남 24세, 여 22세)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총 23명(남: 10명, 여: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그 자료를 근거이론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으로 이루어졌다. 개방코딩 결과, 119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과정을 패러다임별로 구분하였다. 축코딩 결과는 심리적 동기, 사회적 맥락, 개인 인식, 실천 활동, 심리적 반응, 심리적 결과의 6가지 패러다임으로 구성하여 상위범주들로 도식화하였고, 범주의 본질은 '자발적 봉사활동자의 활동 유형은 단순실천, 자기본위, 공동체추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 된다'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의 단순실천형, 자기본위형, 공동체추구형 범주에 따라 특징을 설명하고, 이러한 결과를 자원봉사활동 연구 의의와 그 제한점에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원봉사활동, 대학생 자원봉사자, 자발적 봉사활동의 유형, 근거이론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0750).”

심사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어 전반적인 분석에서 논문구성에 중요한 분석방향을 제시해주신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서 론

역사적으로 볼 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은 주로 자기희생, 헌신, 자선, 상부상조, 박애주의, 인도주의, 이타주의와 같은 개인의 철학적, 종교적, 도덕적 개념들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원봉사는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였다. 20세기 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소집단의 자선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하였고, 그 후, 민간 사회 사업 기관들이 사회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산발적으로 참여해 왔다(조희일, 1991).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원봉사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인식하는 등 사회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사회분위기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소외된 사람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의 해결에 관한 이해 및 실천 능력을 습득하고, 이에 기초한 사회개선을 체험함으로써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숙해 질 수 있으며(정태연, 전경숙, 박은미, 2008), 특히,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중요한 사회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 왜냐하면 다문화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타인이나 타문화에 대한 공감 및 이해능력인데, 타문화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이러한 소통을 통한 수용성 증진 및 타문화 이해와 포용(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의 가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배양되는 심리적 태도와 동일하기 때

문이다. 즉, 양자 간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채택하고 코드전환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중요하다(정진경, 조정아, 2008). 즉, 자원봉사를 통해 문제적 사회현상을 해결하고자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된다면, 한국사회의 다문화에 필요한 중요한 구심점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정부, 민간단체, 언론계,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의 효용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덕기, 2001).

우리 사회는 이미 1995년에 ‘5·31 교육계획안’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정한 바 있다. 이 계획안은 전 사회의 교육장화, 실천 중심의 교육, 인성·도덕교육의 강화, 개별성을 고려한 교육 등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강한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더불어 사는 인간’, ‘도덕적 인간’, ‘슬기로운 인간’, ‘열린 인간’, ‘일하는 인간’을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인간상으로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하고(이경은, 김중대, 2000), 이에 대한 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보고서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정태연 외, 2008),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중고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40대의 사람들이었으며 대학생들의 참가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 되었다. 동기 면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이유 중에서는 내적인 성장과 함께 성적 반영을 위한 도구적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매우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자원봉사를 하는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단순히 이타적인 자기희생으로만 이해하는 기존의 입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자주 하지 않는 한 이유는 그러한 활동이 그들의 특정 욕구나 동기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 기존의 한 연구에서 보면(홍연숙, 2000),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중단하는 이유 중에는 보상체계의 불만이나 기대와의 불일치, 시간부족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해와 관련된 요인들이 다수 있었다. 즉,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심리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대심리로 인해 자발적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욕구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미정(2007)의 연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참가하는 이유로 '남을 돋기 위해'가 26.3%, '자기 성장 및 개발을 위해' 19%, '진학 및 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19%, '새로운 경험과 대인관계를 넓히기 위해' 18%,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기 위해'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자발적 성향을 띠는 봉사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의할 수 있을까? Sieder (1971)는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을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 통제하고 개선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사의 다양한 조직적 활동에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활동에서 자발적 속성을 가장 강조하여 전통적인 의미의 타의적이지 않고, 강압적이지

않은 형태의 봉사활동을 자발적이라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 의미를 강압적이지 않고, 타의적이지 않은 자의적 활동으로 조작하여 분석대상을 선별하였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적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는 넓게 본다면 다양한 개인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는 차원의 의미(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1998)나 친족이 아닌 공식적인 특정한 조직을 통해 타인을 위한다는 제한적인 의미(Darvill & Munday, 1984)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는 참가자의 다양한 자발적 동기에 기초하며(안찬우, 2011), 전통적으로는 자원봉사의 원천으로 자발적인 이타적 동기를 중시해왔다. 또한,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정의나 설명들 역시 개인의 심리적 보상을 비롯하여 사회적 맥락에 기초한 설명이 많으며(Ilsley, 1990), 많은 연구를 통해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자아실현성,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사회성, 공동체성, 복지성, 민주성, 개척성, 지속성 등이 제시되었다(양창삼, 1997). 또한, 자원봉사가 이타주의, 헌신, 자유의지, 학습, 경제적인 무보수성, 조직화, 심리적 이득, 희생을 그 특징으로 한다는 현외성 등(현외성, 조추용, 박차상, 1998)의 설명에서도 이러한 점들이 잘 드러난다. 즉, 과거에는 개인의 이타적 동기를 하나의 개인적인 성격 특성으로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가령, 개인의 친사회적, 이타적 행동을 예측하는데는 개인의 성격적 차이보다 상황적 필요성과 같은 외적인 측면이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 (Baron & Byrne, 1981). 또한, 자원봉사의 경험(정수경, 2004; 조수민, 2006)이나 그것과 관련

된 직장과 업무(전진호, 2000)를 맡는 것이 이타적 동기의 개발에 필수라는 생각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발적인 이타성 동기 이외에도 자원봉사에는 자발적인 개인본위적 동기도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즉, 자원봉사에 대한 참가자들의 개인적 가치나 기대가 자원봉사활동의 여부 및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내적인 측면에서 봉사자들의 이타적인 동기보다는 봉사활동에 대한 가치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같은 요인이 봉사활동의 지속성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했다(김용길, 1996).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 욕구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보상이 필요하며(김기원, 1997; 정태연 등, 2008), 사회구조적 개선도 요구된다(김정용, 2002). 결국 자발적 봉사활동에는 이타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동기의 충족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식적으로는 무보수성, 사회성, 공동체 등을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의 만족과 같은 이기적인 욕구가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Frances(1982)는 이러한 양가적인 측면을 모두 수용하여 자원봉사활동의 만족을 측정할 때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를 모두 포괄했다. 또한, 봉사활동의 지속에도 개인적 특성요인, 활동 상황요인, 대인관계 만족요인, 봉사활동 만족요인 등 두 유형의 요인이 모두 중요했다(홍연숙, 2002).

따라서 자발적 봉사활동이더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타적인 면과 이기적인 면이 봉사활동에 공존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봉사활동이 이러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특정 봉사활동이 이러한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보상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보상으로는 학점과 자격획득과 같은 물질적이고 개별적인 보상체계가 있을 것이고,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보상도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은 18세 이상이 참가하는 VISTA 프로그램이나 평화봉사단,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심의 전국 학생자원봉사프로그램(NSVP)과 UYA 프로그램 등에서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고,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실질적인 작업 기술, 대학 진학, 취업 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정태연 등, 2008).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보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학생은 어떤 활동을 많이 선택할까? 나아가 구체적 실천을 통해 얻게 되는 심리적 반응이나 심리적 결과는 어떤 것일까?

본 연구는 이러한 몇 가지 의문점에서 출발했다. 말하자면, 한국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양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했다. 이러한 자발적 봉사활동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심리적 동기와 구체적 활동, 심리적 반응, 심리적 결과 및 의미를 알아볼 수 있고, 이들의 연계성을 취합한 다양한 패러다임과 그 양상을 구별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몇 정책적인 함의를 지닐 수 있다. 가령, 자발적 봉사활동을 보다 원만하게 실천하는데 필요한 학교차원에서의 교과과정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들에게 필요한 자원봉사자활동 개선 방향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안한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채택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방법론은 현장에서 얻은 자료를 통해 이론을 구성 및 생성하는 방법론으로, 현장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 상호작용, 사회적 과정 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생성된 이론은 '그럴 듯한 관계'가 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4). 또한, 이 분석의 모든 과정은 지속적으로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통해 이루어지며,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견한 사실들을 속성과 차원에 따라 비슷한 개념으로 묶음으로써 서로 다른 개념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이다(Strauss & Corbin, 1998). 이 방법론을 본 연구에 적용하면, 대학생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찾아내고, 그 개념들 간의 관계성을 밝힐 수 있다. 또한 범주화기법을 이용하여 봉사활동 참가자들의 다양한 유형을 찾아내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각 개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Chenitz & Swanson, 1986).

연구대상

원래 봉사활동에 참가한 총인원은 대구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92명(경일대학교 10명, 대구대학교 10명, 대구카톨릭대학교 64명, 영남대학교 8명), 서울지역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32명(적십자간호대학 12명, 서울여자간호대학 5명, 광운대학교 7명, 숭실대학교 8명) 등 124명이었다. 이들은 대구 및 서울지역 내 복지시설(국제재활원, 평화계곡, 대창양로원, 들꽃마을, 동작구청, 살레시오 고아원, 대한적십자사, 적십자병원, 등등)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들 중 자발적인 계기로 봉사활동에 참가한 23명(남: 10명, 여: 1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참고로 28명은 타인에 의해 강압적인 활동이라고 보고했으며, 73명은 교육과정상이나 절차상에서 실시되는 의무적 참가 형태라고 보고하였다.

연구절차

먼저,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원봉사를 통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자원봉사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자원봉사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등과 같이 자원봉사의 동기, 구체적 활동, 자신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의 의미 내지 사회적 맥락에서 여겨지는 자원봉사의 특성, 심리적으로 느낀 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갖게 된 심리적 의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질문은 면접이나 질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은 2008년 8월 25일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8개월 간 3명의 면접자들에 의해 한 번 방문할 때, 한 가지 질

문을 하여 총 여섯 가지 질문을 6번에 걸쳐 방문하여 반구조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이 제시한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심층면접이나 질문지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텍스트화 즉, 모든 내용을 참가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했다. 전체 텍스트 양은 연구대상자당 A4 용지 6매~8매 정도였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를 코딩하기 위해서 문장과 단락을 단위로 동기, 행동, 정서, 의미 등을 분해하고 재조직화했다. 그 다음, 근거이론에서 사용하는 코딩방법에 따라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방코딩작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심층면접과 질문지를 통해 얻은 자료에 나타난 현상을 명명함으로써 개념을 도출해 냈다. 명명된 개념들 간의 지속적인 비교과정을 통해 유사한 개념들을 범주화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그 다음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이때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해 낸 범주들을 속성과 차원에 근거하여 축패러다임에 맞게 재구성한다. 축은 여섯 가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리적 동기는 원인이 되는 조건 즉 봉사활동을 하게 된 동기, 실천활동은 참가자들이 실시한 봉사활동의 속성, 심리적 반응은 봉사활동 이후 보고하는 인지적, 정서적 태도나 경험, 심리적 결과는 최종적으로 갖게 된 봉사활동의 의미를 기술하였다. 아울러 사회적맥락은 대학생들이 실천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맥락조건, 개인인식은 개인이 생각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것이다. 이러한

축패러다임은 다양한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였을 때, 심리적인 반응이나 그 결과로 나타난 봉사활동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과정을 밝혀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을 실시하였다. 축을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여, 과정이 다른 패턴을 선택적으로 나누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적절한 차원명을 명명하였고, 연구대상자들의 경험양상을 고려한 선택적 해석을 부연하였다. 즉, 축패러다임 중 심리적동기와 심리적 반응, 심리적 결과를 중심으로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참여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구분된 참여자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들 외에도 박사과정에 있는 한 명의 대학원생도 분석에 참가시켰다. 그래서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각자 실시한 후 서로 교차 비교하여 결과를 조정하였으며, 선택코딩의 경우 파악된 사례를 추론의 범주로 확장할지 아니면 특이한 사례로 간주하여 일반화에서 배제할지를 합의하여 결정하였다.

결과

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 범주화분석

개방코딩 결과 최종적으로 119개의 개념과 41개의 하위범주, 1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 과정을 패러다임별로 구분하였다. 각 패러다임 별로 상위 범주와 하위범주를 표 1에 제시하였다¹⁾. 다음,

1) 개념은 지면상의 이유로 표 1에 제시하지 못했고, 본문에서 축패러다임에 근거한 조건들을 기

표 1. 자발적 봉사활동에 대한 범주화분석

| 축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
| | 궁금해서 | 호기심, 관심 |
| 심리적 동기 | 내가 할 수 있기에 타인을 돋기 위해 | 경험축적, 자기보람 이타적, 타인을 의식해서 |
|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맥락 | 자기주도적 타인 배려 | 자발적, 자의적 활동 이타성, 무보수 |
| 봉사활동에 대한 개인인식 | 활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 개인관여 | 타의적인 활동 비판, 주변인의 귀감 과거 경험 있음, 자기진로 |
| 실천 활동 | 일손도우미활동 대인 돌봄 활동 | 청소, 밭일, 잡일, 공무 아이돌보기, 장애우도우미, 노인 도우미 |
| 심리적 반응 | 봉사활동의 전문성 인식 자기만족 타인수용개선 | 필요성 인식, 자질이 요구됨, 부끄러움 기분좋음, 온정을 느낌, 자기가치, 자기보람, 반성 동등성, 상호교환, 타인이해 |
| 심리적 결과 | 봉사활동성 확대 일상의 작은 변화 자기 계발 | 지속적인 활동 기대, 이타성 증가 소소한 의미, 일상에 만족 성취감 충만, 자기발견, 마음의 풍족 |
| | 사회적 교훈 내재화 | 타인에게 배움, 공동체성 공감, 봉사활동의 교훈 |

개방코딩을 통해 분해한 범주들을 축폐러다임에 근거하여 모형을 구축하였고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심리적 동기

참가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에는 ‘궁금해서’, ‘내가 할 수 있기에’, ‘타인을 돋기 위해’의 상위범주가 있었다. 첫째, ‘궁금해서’의 경우는 자원봉사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알아보고 싶다는 동기가 생겨 시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생이 된 후 농촌활동이나 각종 봉사캠프

술할 때 개념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면서 이러한 동기가 발생했다.

둘째, ‘내가 할 수 있기에’의 동기요소는 자신의 기량이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욕적인 면이 돋보이는 자원봉사자였으며, 다소 특정한 자기 보람의 목적을 염두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봉사활동에 따른 높은 만족도를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봉사활동이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셋째, ‘타인을 돋기 위해’와 관련해서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동정심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지

인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반의 동료나 선배 혹은 소속된 집단의 권유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그러했는데, 특히,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그 특성 상 복지기관들과 연계되어 있어 기관의 요청이 봉사활동을 간접적으로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종교적인 연유로 인해 봉사활동을 부탁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는 자신의 만족보다는 타인을 돋기 위한 이타적인 태도가 더욱 강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태도가 매우 높았다.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맥락

참가자들이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사회적 맥락에는 ‘자기주도적’과 ‘타인배려’의 두 가지 상위범주가 있었다. 첫째, ‘자기주도적’ 특성이 봉사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지는 분위기이고, 이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율의지의 특징이 기반되어야 원만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타인배려’의 특성 역시 사회적으로 강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것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많으며,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친사회적인 성향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개인 인식

자발적 봉사활동에서 개인이 인식하는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으로는 ‘활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개인관여’의 두 가지 상위범주가 있었다. 첫째, ‘활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강

압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점을 따기 위해 행해지는 봉사활동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이들은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주관적 규범 상태를 강조하여 도구적인 봉사활동을 지양하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둘째, ‘개인관여’에서는 참여자의 진로나 자기 관리, 과거 경험적인 측면들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전에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도 하였고, 이러한 사전 준비는 봉사활동을 실행할 때에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통해 미리 경험을 해 본 경우나 주변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 자원봉사를 어렵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천 활동

참가자들이 봉사활동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는 크게 ‘일손도우미활동’과 ‘대인돌봄활동’의 두 가지 상위범주가 있었다. 첫째, ‘일손도우미활동’의 속성은 청소나 소일거리와 같은 잡다한 일거리 위주였으며, 대체로 대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쉽게 접근이 용이한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지역이나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과도하게 많을 때 그들이 가장 수월하게 모집할 수 있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대다수 참가들은 이와 같은 노력봉사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야유회, 경로잔치, 관광행사 등에 보조로 일하는 활동이나 국가행사 혹은 지역행사에 도우미로 참가하는 활동,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대회나 행사 및 활동에 봉사활동에 참여, 등등의 다양

한 도우미활동이 주요 봉사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인돌봄활동'은 주로 이타성이 동기가 되어 다양한 대인부양서비스 활동에 참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특히,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주로 노인이나 장애우, 아동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참가자들은 노인이나 어린 아동들이 발달상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활동을 했다. 또한, 인가 및 비인가 단체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인관리 인력지원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으며, 대체로 자기보람을 경험하기 위해서 혹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같은 활동을 실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리적 반응

자발적 동기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반응에는 '봉사활동의 전문성 인식', '자기만족', '타인수용개선'의 세 가지 상위법주가 있었다. 첫째, '봉사활동의 전문성 인식'의 심리적 반응을 얻은 대상자는 호기심이 계기가 되어 봉사활동을 실천한 자원봉사자가 많았으며, 스스로 자신의 준비부족을 언급하거나 앞으로의 노력해야 할 봉사활동의 전문적 준비에 대해 운운하면서 대체로 반성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둘째, '자기만족'의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 경우에는 봉사활동의 동기 역시 대체로 자신의 관점에서 시작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았으며, 활동과정에서도 개인차로 인하여 가장 많은 유형의 활동을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의 심리적 반응은 자신의 내적 심리 변화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타인수용개선'의 심리적 반응은 봉사활동 이후 타인에 대하여 더 많은 이해를 하거나 사회적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봉사활동의 동기 역시, 타인의 관점에서 이들을 돋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었으며, 활동에 있어서도 대인보조활동이 대부분의 구체적인 봉사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결과

자발적 봉사활동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심리적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태도나 내재화된 의미에는 '봉사활동 확대', '일상의 작은 변화', '자기 계발', '사회적 교훈 내재화'의 네 가지 상위법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선, '봉사활동 확대'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참여했던 대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하거나 더 열심히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에 몰입하면서 태도 역시 자신의 행동적인 측면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일상의 작은 변화'의 결과가 나타났는데, 평소에는 잘 몰랐거나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일상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나서 그 소중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거나 일상에서의 변화로 인한 내 가족이나 나의 건강, 나의 학교생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심리적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 자극이 되어 타인을 배려하고 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다수의 경우, 호기심에 의해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예기치 않았던 심리적 반응을 포함하여 그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소소한 의미발견과 이타성 개선에 관련된 심리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기 계발’의 의미가 스스로에게 강한 내재화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들은 동기적 차원에서도 자신의 관점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했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자신감이나 존재감, 기쁨, 보람 등등의 자기실천의 의미적 내재화 과정을 통해 자기계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기대하고 의도한 봉사활동의 만족도에 따라서 심리적 결과도 반영된 자아성찰내지 반성의 태도도 나타났다. 즉, 자신이 선택하고 수행한 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으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봉사활동에 참여한 후 그 의미를 생성과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심리적 보상이 평가의 주요 요소로 자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훈 내재화’의 심리적

결과에서는 자신의 심리적 의미 확보 과정이 라기보다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사회적인 봉사 활동의 교훈을 위주로 심리적 결과로 내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들에게는 타인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사회적 준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해 봉사활동에서도 타인을 도우는 대인서비스활동을 많이 하였으며, 심리적 결과 면에서도 타인이나 사회적 공동체의 공감대 형성에 더 큰 의의를 봉사활동의 큰 의미로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봉사활동을 경험한 후 자신에게 국한된 가치체계를 초월하여 시민의식과 같은 범사회적인 윤리를 의식하게 되었다. 즉,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요건들을 이해하게 되었거나, 개인적인 목적의 추구보다는 공동성을 지향하는 목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의 자발적 봉사활동 유형화 분석

자발적 봉사활동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의 도식화된 봉사활동과정(그림 1)에서 이들의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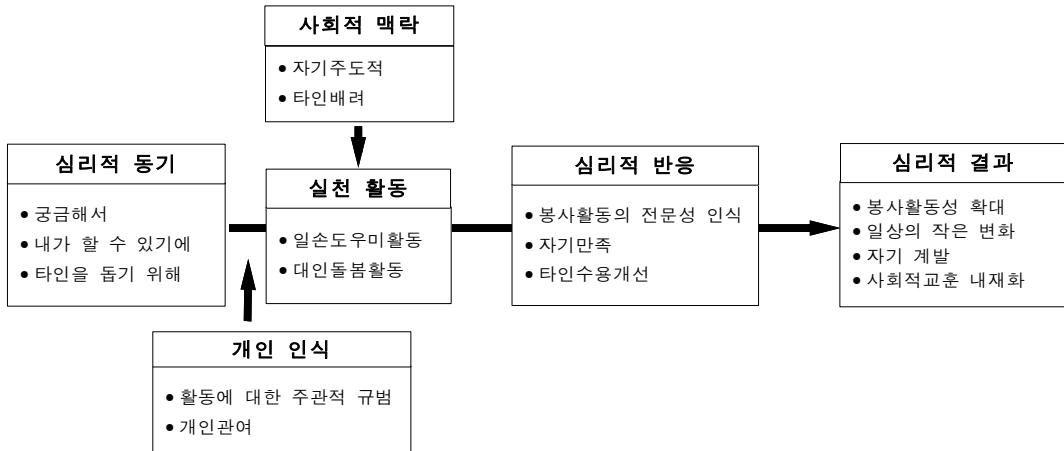


그림 1. 자발적 봉사활동의 과정분석

적 동기, 실천 활동, 심리적 반응, 심리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선택적으로 구분이 가능한 유형을 도출하였고, 그렇게 도출된 유형에 기초하여 유형화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그림 1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세 가지 심리적 동기를 가지고 구체적 활동을 실천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에 기대하는 맥락적 요소와 개별적 경험을 통해 내재하고 있는 개인 인식의 중재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렇게 실천한 봉사활동 이후 심리적 반응과 결과적으로 어떤 심리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범주화의 핵심 본질은 ‘자발적 봉사활동자의 활동 유형은 단순실천, 자기본위, 공동체 추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 된다’라고 할 수 있다(표 2). 또한, 실재적으로 봉사활동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경험과정은 근거이론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패러다임의 연결성을 반영하고 있었으며, 본 연구자들이 명명한 단순실천 유형, 자기본위 유형, 공동체추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단순실천 유형

이들이 경험하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동기는 주로 궁금증이며, 남자 4명, 여자 4명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농활이나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면서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이 유형의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단체, 학교활동,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직면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경험을 위주로 심리적으로 반응했으며, 봉사활동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준비의 부족을 반성적으로 내적귀인하고 있는 유형이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이나 관찰이 봉사활동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앞으로 이들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자기 준비의 자세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참가하는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뚜렷한 양상은 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캠프나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보육원 시설 청소 등등의 부족한 일손을 지지하기 위한 노력봉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결과적으로, 단순실천형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의미는 대체로 호기심과 같은 자기의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면서 이타성이 개선된 심리적 요소가 증가하게 되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몰랐던 자기 자신이나 자신을 둘러싼 일상의 소중함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일상을 더욱 소중하게 바라보는 반성적인 태도를 견지할

표 2. 자발적 봉사활동의 선택코딩 및 유형화 분석

| 심리적 동기 | 실천 행동 | 심리적 반응 | 심리적 결과 | 유형 |
|------------|--------------------------|-------------|--------------|--------|
| 궁금해서 | → 일손도우미활동 → 봉사활동의 전문성 인식 | → 일상의 작은 변화 | | 단순실천형 |
| 내가 할 수 있기에 | → 일손 + 대인 | → 자기만족 | → 자기 계발 | 자기본위형 |
| 타인을 돋기 위해 | → 대인돌봄활동 | → 타인수용개선 | → 사회적 교훈 내재화 | 공동체추구형 |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기본위 유형

이 유형의 자원봉사자들은 남자 4명, 여자 6명이 해당하는 사례였고, 타인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문제가 봉사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활동을 비롯한 심리적 의미나 반응에서도 봉사활동의 중요한 피드백으로 작용한다. 이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인성을 계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보상이며, 가장 자의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의지에 부합하는 만족 정도에 따라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슴 뭉클한 감동, 뿌듯함과 같은 심리적 반응을 통해 봉사활동에 자기만족의 가치를 부여하여 평가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이들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구에 기반하여 그러한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며, 봉사활동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활동 면에서도 가장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들 자신의 전문성 및 지적 조건과 관련된 활동을 선호하여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진로개발의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도 있다. 또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 미리 계획한 활동을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사회적 개발도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본위형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다 건설적인 성취감을 보상받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추구하고,

봉사활동을 통한 자기계발의 의미를 공고히 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강화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추구 유형

이 유형의 자원봉사자들은 남자 2명, 여자 3명이 해당하는 사례였고, 자신의 입장보다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타인의 입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도 당위적 필요성이 있는 활동을 선호한다. 즉, 사회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를 개선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의 인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편견을 제거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가령, 이들은 캠프활동의 실적주의적 봉사활동이나 기부금 전달과 같은 활동을 지양하고, 사회제도의 내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들과 같은 대인부양서비스 활동에 매진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공동체추구 유형의 자원봉사자들은 나보다 타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 나와 타인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감대를 이루며, 공동체적 의식을 배양하는 것을 봉사활동의 중요한 의미라고 판단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Strauss & Corbin,

1998)을 토대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을 경험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 봉사활동에 개입하고 있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개인적인 자발적 동기나 활동형태, 그로 인한 심리적 보상 및 사회적 수준에 따라 단순실천형, 자기본위형, 공동체추구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먼저, 단순실천형들은 호기심 때문에 봉사 활동을 실천해서 소소한 의미를 찾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래의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실천한다기보다는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성향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활동 면에서도 많은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관공서나 여러 사회복지 단체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봉사활동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이 봉사활동을 경험하면서 사회소외계층이나 사회문제적 상황에 대하여 정서적인 공감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무엇보다도 열의를 가지고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통해 봉사활동의 중요성에 관한 심리적 의미를 새기고 있었다. 즉, 이들의 봉사활동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열성적인 노력을 쏟아서 선택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인지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적절하고 적합한 활동이라는 평가를 부여하고 싶은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대학생들은 봉사활동을 경험하면서 높은 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내재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대학생들은 아무런 준비나 체계 없이 봉사활동을 경험하여 어려움에 봉착하면 봉사활동에 대하여 스스로의 부끄러운 평가를 내리는 모습도 보여준다. 이것은 아직 봉사활

동을 실천하기에 미비한 점이 많고, 때로는 자신에게 적절하지 않은 봉사활동을 계획성 없이 실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성개발이나 준비성개선 등의 보완점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지속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될 것이다.

둘째, 자기본위형들은 대체로 단순실천형보다는 경험이 많아서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활동을 선택적으로 실천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보이는 동기는 대다수 자신의 심리적 충족을 고려하여 의미적 보상 충족을 필요조건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원봉사를 희생의 의미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 자신에게도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가하는 봉사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정태연 등, 2008). 즉, 동시대적인 상황의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발적 유형의 대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자기만족의 안정적인 지원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으며, 여기에 관련하는 제도적 지원이 자원봉사의 지속성이나 만족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다양한 봉사활동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제의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요즘 대학생

들에게 봉사활동의 영역을 자신의 진로와 결부시키거나 나 자신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 계열의 많은 발전과 자원봉사활동의 개인적 의식신장으로 인해 현대사회의 대학생들은 합리성이라는 중요한 준거를 통해 본질적인 봉사활동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은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비추고, 학점을 따기 위해서 규정된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도구적 맥락에서의 의미만 의식한다면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나 실적주의식 '점수 따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일 수도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대상자들에게는 자기 중심적인 차원에서의 자기 계발과 더불어 타인 중심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의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봉사활동으로 거듭날 것이다.

셋째, 공동체추구형은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동기가 활성화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유형의 자원봉사자들은 타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 일부 이타성이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보다는 타인을 배려하여 우리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즉, 활동영역에서도 타인을 직접적으로 돌보거나 간호하는 봉사활동을 많이 실천하고 있었고, 심리적 반응에서도 타인을 이해하거나 편견을 없애고자 하는 성향이 강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결과에서도 사회적 의무감이라는 규범적 윤리의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에게는 궁극적으로 타인의 어려움을 돋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동운명체라는 관계를 강조하여 타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타인수용의식이나 공동체의식 혹은 시민의식과 같은 사회성개발 변인들이 이 유형의 봉사활동 결과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의식하고 있는 사회 맥락적 봉사활동의 개념에는 자의적이고 이타적이고 무보수의 형태를 강조한 활동이라는 개념을 매우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태도는 크게 '활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개인관여'의 두 가지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활동에 대한 주관적 규범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부감을 일으키고, 비교되는 봉사활동 대상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도구적이고 타의적인 봉사활동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이 너무 실적 주의적이고 의례적으로 행사되는 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관여의 정도는 자신의 개인적 경험이나 진로와 관여된 봉사활동의 연결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관여의 맥락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았지만, 분명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개인 상황을 연계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봉사활동의 노력여하에 중요한 중재점을 제기하는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교육장면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과

정이나 프로그램의 운영, 종교단체에서의 활동이 자원봉사에 중요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그들에 대한 봉사활동 역시 학교장면의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정태연, 박준성, 박은미, 2008).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도 봉사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봉사활동을 가족단위로 접근할 때 그 효율성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부모교육과 같은 사회적 프로그램이 중요할 수 있다. 기존의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보듯이(정태연 등, 2008) 자원봉사에 참가하는 비율이 40대 중년기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높다는 사실은 앞으로 대학생 자녀들의 봉사활동 참여비율을 높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매체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봉사활동에 중요한 중재적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수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이나 의미를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결론의 의의를 통해 자발적 봉사활동의 연구의 지향점 및 한계점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두고자한다. 먼저 봉사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내지 준비과련 지원시스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 일지라도 자기계발이나 사회적 공헌에 체계적으로 일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도움 행위를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용화된다면 보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봉사활동에 대한 주먹구구식의 실적주의 관리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적인 노력과 관련된 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실제 우

리나라에서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조직 및 단체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자료가 매우 미흡하다. 더구나 본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도 자기본위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대상자의 동기적 요소 중에 학점이나 자기진로와 관련되어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보아 봉사활동의 결과가 도구적으로 퇴보할 경우도 우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봉사활동 본질에 대한 개선방향의 단초가 될 것이며, 특히 대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봉사활동을 설계할 시에는 반드시 이 평가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자원봉사자들의 공동체의식개선과 연관하여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세에 필요한 시민의식개선 연구가 필요하다. 즉, 봉사활동은 타인을 수용하는 심리적 태도를 개선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다문화이주민들을 수용하는 데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요구특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젊은 청년들의 의식에서는 이미 자기충족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마저 퇴색되어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지 않은 봉사활동은 교육프로그램으로써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원봉사자들이 젊은 기간에 자신에게 적절한 봉사

활동을 찾을 수 있게 되고, 봉사활동의 효율성 역시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생 자발적 봉사자의 봉사활동 경험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양상을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혔지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맥락에서 다양한 동기들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필두로 다양한 동기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자원봉사활동들의 추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앞서 언급했던 자원봉사들의 유형화 진단도구개발에 세부정보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원 (1997). 자원봉사 참여욕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0(3), 1-48.
- 김용길 (2000). 사회복지관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연구. *충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용 (2002). 청소년 자원봉사의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청소년 복지연구*, 6(2), 55-67.
- 안찬우 (2011).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봉사정신과 스포츠 자원봉사의 동역학적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창삼 (1997). 사회봉사의 철학과 기능, 대학의 사회봉사. *한양대 사회봉사단*.
- 이경은, 김중대 (2000). 청소년 사회참가활동의 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10, 375-395.
- 전진호 (2000). 사회복지 전공학생들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덕기 (2002). 자원봉사의식과 봉사활동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경 (2004). 사회복지전공학생의 실천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습지도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6(3), 327-355.
- 정미정 (2007). 대학생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경, 조정아 (2008). 새터민과 남한주민을 위한 문화통합교육의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487-518.
- 정태연, 박준성, 박은미 (2008). 초, 중, 고 대학생 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3), 371-388.
- 정태연, 전경숙, 박은미 (2008). *한국사회와 교육적 성취: 한국 사회의 맥락과 과제 : 공동체의식의 함양에서 본 한국 학교교육의 문제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469~485.
- 조수민(2006). 실습경험이 사회복지전공생들의 전문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휘일 (1991). *한국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조직특성에 관한 연구*. *충실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휘일 (1998). *현대사회와 자원봉사*. 서울: 홍익재.
- 최훈석, 양애경, 이선주 (2008).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안산과 영암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39-69.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998). *21세기와 자원봉사*. *한국자원봉사전국대회 자료집*.
- 허성호, 정태연 (2010).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 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 21(3), 143-164.
- 현외성, 조추용, 박차상 (1998). 대학사회봉사론. 서울: 유풍출판사.
- 홍연숙 (2002).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지속결정요인. 청소년복지연구, 4(1), 75-97.
- Baron, R. A., & Byrne, D. (1981). *Social psychology: Understanding human interaction*. Boston: Allyn & Bacon. Inc.
- Chenitz, W. C., & Swanson, J. M. (1986). *From practice to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Menlo Park, CA: Addison-Wesley.
- Carvill, G., & Munday, B. (1984). *volunteers in the personal social service*. London & New York: Tavistock.
- Francies, G. R. (1982). *The volunteer needs profile*. Greenbay. Wisconsin: University of Wisconsin.
- Ilsley, P. J. (1990).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San Francisco: Jossey-Bass.
- Sieder, V. M. (1971). *Volunteers*.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6th ed.). Washington, DC: NASW.
- Strauss, A. L.,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논문 투고일 : 2011. 04. 18

1차 심사일 : 2011. 05. 02

2차 심사일 : 2011. 07. 15

제재 확정일 : 2011. 08. 19

Processes of Voluntary Services Delivered by Korean Undergraduates: An Approach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Hu, Sungho

Jung, Tae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phases and paradigms related to voluntary services offered by undergraduates and the processes in which voluntary services are implemented. For this, interviews for 23(men: 10, women: 13) undergraduates were conducted from Aug., 2008 to Apr., 2009 were conducted and the data collected from those interview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Grounded Theory. Main analysis procedure is known as codings(open coding, axial coding, selective coding). This analyses produced 119 concepts, 41 subcategories, and 16 categories in open coding. Then, axial coding was conducted to organize the basic framework of generic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motivation, social context, personal perception, practical action, psychological response,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 Core essence is "Volunteer types are categorized simple practice type, self-serving type, and community type." Finally, undergraduate volunteers were explained in 3 types(simple practice, self-serving, and community) on the basis of paradigm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further research and limitation.

Key words : volunteering, undergraduate volunteers, volunteer types, and grounded theory